



## 中國 山東省 농업시찰을 다녀와서

김진태 대리  
(본 협회 연수·지도부)



▲ 10월20일 曲阜(곡부)시 공자묘 앞에서 중국연수자 일동

2002년 10월17일 인천여객터미널에서 5박6일간의 중국 산둥성 농업시찰 및 유적지 탐방을 위해 우리일행 21명은 중국 山東省으로의 첫 여정을 시작했다. 검푸른 서해바다위로 멀리 뱃길을 뒤로 한 채 다음날(10월18일) 아침 우리 일행은 산둥성 威海(위해)항에 도착하여 제4회 세계 과수·과채박람회를 견학하기 위해 곧바로 煉台(연태)시로 이동하였다. 연태시 세계 과수·과채 박람회장에서 아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중국 농산물을 보고 우리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가졌다. 새삼 중국 농업의 급성장과 발전상에 대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 농업을 비교하면서 중국농업에 대해 대응하는 우리농업인의 자세를 새롭게 했다. 우리는 산둥

성에서도 배(梨)로 아주 유명한 萊陽(래양) 과수단지를 방문하여 배 과수원을 둘러보고 농장주와 래양시 무역관계자로부터 산둥성 과수관련 설명을 듣고 중국 과수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하면서 한·중 농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우리 일행은 전세버스로 維坊(유방)시로 이동하여 연(鵝)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10월 19일 우리 일행은 壽光(수광)시로 이동하여 시설하우스를 둘러보고 중국 시설농업을 견학한 후 근처에 있는 채소공판장을 견학하였다. 수광시 채소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채소는 아주 다양하였으나, 주로 거래되는 품목은 마늘, 파, 당근, 감자 등이었다.



전세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중국의 광활한 대지는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넓게 보였다. 산둥성 지역은 주로 옥수수과 밀을 주 작목으로 하고 있으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넓게 펼쳐진 밭에 밀과 옥수수가 가득 재배되고 있었다.

차를 타고 태안시로 이동 중 秦始皇 때의 유물이 있는 古車박물관에 들러 중국 황제들이 이용하던 전통마차와 수레 등을 둘러보고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목적지는 우리가 잘 아는 泰山(태산)으로 가는 길이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것 마는 /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라는 양사언의 시로 너무나 잘 알려진 태산을 향해 이동하였다.

태산을 올라가는 길은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약 2Km쯤 올라가니 어느덧 산 위는 한 겨울로 변해있어서 기념품상점에서 두꺼운 솜옷을 빌려 입고 태산을 감상할 정도였다. 태산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안개에 휩싸여 더욱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오후 늦게 우리일행은 태산을 내려와서 두번째날의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0월 20일 우리 연수단은 아침 일찍 공자묘와 사당이 있는 曲阜(곡부)로 이동하여 공자와 그 자손들의 묘가 있는 孔墓(孔墓)를 참배하고, 말로만 듣던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공자의 유교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자묘를 둘러본 후 우리는 濟南(제남)시에 위치한 중국 제2의강(어머니의강)이라 불리는 黃河(황하)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황하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고 황톳물이 끊이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어서 강태공의 사당이 있는 취박사에서 중국에



▲ 산둥성 레양시 배과원에서 농장주가 연수자들의 질의에 응답

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10월 21일 아침 우리 일행은 맥주와 100년 이상의 고색창연한 독일식 건물로 유명한 靑島(청도)시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제에 항거한 5.4운동 공원과, 小魚山(소어산)공원을 둘러보고 우리일행은 귀국하기 위해 청도항으로 이동하였다. 중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청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페리호에 올라서 마지막 저녁만찬을 함께 하며, 중국에서의 농업견학과 여행에 대한 평가회와 앞으로의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 항해중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지만 모두들 참고 견디어 우리는 10월 22일 오후3시쯤 약 24시간의 지루한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인천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중국농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중국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우리의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좀더 체계적으로 넓고 광활한 중국 전체의 농업을 보고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점으로 남지만 후회 없는 견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여 5박6일 동안 동고동락하신 20명의 연수단 여러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